

야 '제한적 수사권' 절충안... '특별법' 돌파구 열릴까

여야, 재협상 돌입... 새누리 "사법 체계 근간 흔들다" 싸늘한 반응

여야는 22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2' 협상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TF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이른바 절충안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이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별감찰부나 특임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23일까지 합의안 마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다시 세월호 TF를 가동한만큼 의견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왼쪽부터), 홍일표 법사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전해철 법사위 간사가 22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형사 사법체계상 수사권을 주는 것은 신중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3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유병언 청해

진해운 회장이 번사체로 발견됐다는 경찰의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에서 "유병언의 사체를 은신처 코요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검찰에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라며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는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대변인 박법계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무장관이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런 검경에 진상 규명을 맡기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유병언 사망이 확인됐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글을 올려 공세를 거들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병언 사망' 정치권 반응

여 "철저한 수사" 야 "무능한 정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과장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은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2일 "일단 유병언의 소재가 확인되고 사망 사실이 밝혀졌으니 후속 수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 수사과정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며, 동시에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와 사후대책 마련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훈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유병언 수사는 세월호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나 전부는 아니다"라며 "수사 당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비리를 낱알이 파헤쳐 국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길 엄중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수사는 수사당국의 소임, 재보궐 선거는 여야 정치권의 당면과제인 만큼 수사는 수사대로, 선거는 선거대로 충실히 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골을 발견하고 유전자 감식을 하면서도 (유병언 사체)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당국이 수사결과까지 발표해 국민에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래서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수사 당국의 '유병언 검거 작전' 실패를 정부의 무능함으로 연결지며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경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신 발견 40여 일 동안 정황 증거가 묵혀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무능함, 세월호 참사로 드러나는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당국의 무능함과 부실함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반드시 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에서 "모두가 어안이 병방하다. 발표대로라면 유병언도 죽고 진실의 한 조각도 땅에 묻혔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려 석 달간이나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검·경, 군까지 동원돼 총력을 기울였던 검거 작전이 실패했다"며 "유병언씨를 검거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된 만큼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병언 변수' 부동산 표심 향방 촉각

여 '수사 허점' 악재 될라... 야 '선거 무관심' 우려

7·30 재보선 D-7

여야는 7·30 재보선을 8일 앞두고 불거진 '유병언 사망'이라는 '돌발변수'가 부동산 표심을 비롯, 중반으로 접어든 선거 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전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유병언 검거작전'이 예기치 못한 '허탈한 결과'로

끝난 가운데 사체 발견 후 40일간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유병언 이슈가 '블랙홀'처럼 정국을 집어삼켜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불똥이 어디로 떨어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둘러싼 책임소재 규명의 지를 표명하며 발빠르게 대응했다. 여권이 진상규명이나 수습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고 야권의 '무능정권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야권에게 '악재'였던 '권은희 공천 파동'이 상대적으로 가라지면서 여당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들의 연쇄 낙마 등에 대한 비판정서는 이미 여론에 반영된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에 반해 '공천 역풍'으로 수도권 전철 위기에 휩싸였던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블랙홀'에서 탈출, 반전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이다.

유병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던 '무능정권 심판론'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문어났다. 그 연장선에서 "검경에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를 고리로 대어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미스터리 투성이인

검경 수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정시스템이 다시 한번 붕괴된대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정권에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는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호창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부터 우리 후보들의 능력과 공약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 선 회장 문제로 휩쓸리게 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우리 신인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갑작스레 '유병언 폭탄'이 터져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유병언 이슈가 선거판을 강타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과거 회귀 세력'대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세력'간 구도 자체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앞
무등 정례시장 사이 7층 건물 사무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업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여수 아파트매매

무지개아파트 7층 35평형(여수 남산동)

매매가격 1억3천

010-6832-9700 062)512-8080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뒀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망좋은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정남향,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분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21개(1층 상가, 룸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8개(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원룸(3억~20억)다량 있습니다.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①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 신원은행 뒤,모아엘가(상가)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②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영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용 150 용9천)
- ③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성오션스) (6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용70 용9천)
- ④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⑤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 ①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천역 1분 출구 2분(울수리 전체제품 신규교체 임대료,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용1천)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용1천)
- ②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 ③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시바없음)
- ④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림)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②10평(수림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 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주)수아 010-6832-9700 062)512-8080